

전국민 AI 경진대회 (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부문)

☆ AI 에게 답 대신  
힌트를 요청하는 법

초등학생과 부모를 위한  
ChatGPT, Gemini 학습 환경 설계 가이드

#AI 리터러시 #초등학습 #자기주도학습  
#학습 환경 설계 #부모 가이드

## OPENING

## 아이의 질문 하나가 만든 변화

이 가이드는 직접 써보고, 아이들과 함께 써본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 “아빠, AI가 뭐야?”

아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I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이에게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후 AI를 직접 공부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펴내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ChatGPT와 Gemini를 직접 써보았습니다.  
수학 문제 앞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AI 자체가 아이의 공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그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능 설명이 아니라, 아이가 AI 앞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가이드의 목적 :**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AI와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 부모와 교사가 그 환경의 설계자가 되는 것.

## SECTION 01

같은 도구, **완전히 다른 결과**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핵심 차이를 먼저 봅니다.

같은 수학 문제 앞에서도 아이마다 AI에게 던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답 받아 적기”와 “스스로 생각하기”를 갈라놓습니다.

**바꾸기 전**

“이 문제 답이 뭐야?”

AI가 답을 알려주면 받아 적고 끝납니다.  
다음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AI에게 묻습니다.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바꾼 후**

“답은 말하지 말고, 힌트만 한 단계씩  
줘. 내가 먼저 생각해볼게.”

AI가 방향을 제시하면 아이가 직접 풀어봅니다.  
막히면 다시 물어보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실력이 쌓입니다.

이 차이는 도구의 차이가 아닙니다. **질문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방식을 만드는 건 아이 혼자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어떤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가 아이의 공부를 바꾼다

AI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올바르게 쓰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그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AI 교육입니다.

AI 학습 환경 설계의 **3원칙**

## ✓ 원칙 1

답이 아닌 힌트를  
요청하는 습관

## ✓ 원칙 2

출처를 확인하는  
비판적 읽기 습관

## ✓ 원칙 3

AI가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 구분하기

SECTION 02

# ChatGPT 활용 - 3단계 실전 가이드

초등학생이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별 접근법입니다.

|   |   |   |
|---|---|---|
| <p><b>1</b></p> <p><b>접근하기</b></p> <p>타이핑 부담 없이<br/>쉽게 시작</p> <p>사진 찍어 질문<br/>음성 대화</p> | <p><b>2</b></p> <p><b>질문하기</b></p> <p>답이 아니라<br/>힌트를 요청하는 습관</p> <p>“힌트만 줘” 프롬프트<br/>생각 유도 질문</p> | <p><b>3</b></p> <p><b>깊게 파기</b></p> <p>진짜 학습이<br/>시작되는 단계</p> <p>퀴즈, 심층 리서치<br/>캔버스, 프로젝트</p> |
|---|---|---|

**\* 1단계 - 사진으로 찍어 질문하기**  
**진입장벽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문제나 교과서를 타이핑 없이 사진으로 찍어 바로 질문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음성 모드를 활용하면 영어 말하기 연습도 심리적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수학 문제 사진 → “이 문제 답은 알려주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힌트만 알려줘”

**\* 2단계 - “힌트만 줘” 질문법**  
**공부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

답을 직접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받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억지로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예시 :**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 답 말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줘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수학 문제  
예시



이 문제 답은 알려주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힌트만 알려줘.

좋아요, 답은 말하지 않고 힌트만 줄게요 🍌

이 문제의 핵심은  $\square$  값과  $\triangle$  값의 차이를 보는 것이예요.

표를 보면

- $13 = 9$
- $14 = 10$
- $15 = 11$
- $16 = 12$

이렇게 대응되고 있죠?

🍌 여기서 먼저 해볼 것:  
각 성에서  $(\square - \triangle)$  를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 $13$ 과  $9$
- $14$ 와  $10$

이렇게 몇 개만해보면 공통된 규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느냐.

방향은 거의 정확해요 🍌 다만 한 가지만 체크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지금 쓴 식이  
 $\triangle + 4 = \square$   
 $\square - 4 = \triangle$   
 이렇게 되어 있죠?

🍌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표의 값 하나를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triangle = 9$  넣으면  
 $9 + 4 = 13 = \square$ 랑 맞나요?

또  
 $\square = 14$  넣으면  
 $14 - 4 = 10 = \triangle$ 랑 맞나요?

🍌 이렇게 몇 개만 대답해서 다 맞으면, 그 식은 완전히 맞는 거예요.

한 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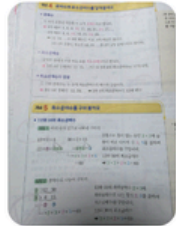
## \* 3단계 - 퀴즈, 리서치, 프로젝트

읽는 공부를 푸는 공부로, 단편 지식을 구조화된 탐구로

교과서를 읽고 나서 퀴즈를 만들어 풀거나, **심층 리서치**로 “왜?”를 파고들고나, **프로젝트** 기능으로 한 주제를 며칠에 걸쳐 깊게 탐구합니다. **캔버스**는 내가 쓴 글을 함께 다듬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예시 : “이 단원 내용으로 객관식 5개, 단답형 2개 섞어서 만들어 줘.  
틀린 문제는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내줘”

### 퀴즈 예시



이 단원 내용으로 문제 5개 만들어줘. 객관식이랑 단답형 섞어서.

좋아요 🍌 이 단원(공백수, 최소공배수) 내용으로 객관식 + 단답형 섞어서 5문제 만들어 주세요.

#### 문제

##### 1번 (객관식)

다음 중 4와 6의 공배수는 어느 것이요?

- Ⓐ 8
- Ⓑ 12
- Ⓒ 18
- Ⓓ 20

##### 2번 (단답형)

3과 5의 공배수를 작은 수부터 2개 쓰세요.

🍌 (.)

##### 3번 (객관식)

### 리서치 예시

####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가장: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 3~6학년용 기준으로, 문장은 쉽게 쓰되 내용은 가능한 한 엄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지금 고생물학자들이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설명은 “\*거대한 소형성 충돌이 마지막 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거의 같은 시기의 지층에서 **아리들이 많은 일회용 충격석, 충돌 때 생긴 유리알 입자**, 그리고 그 시기와 맞는 거대한 충돌구가 함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장밀한 방사성 연대측정도 백악기-팔레오기 경계와 충돌 시점이 사실상 같은 때였음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은 둘 하나가 떨어져서 끝”으로 완전히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인도 지역에 있던 **데칸 트랩 대확산활동**이 경제 진후 수십만 년 동안 기후와 바다를 흔들었음 가능성이 크고, 일부 연구는 이것이 생태계를 약하게 만들어 충돌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확산만으로 전 지구적이고 매우 갑작스러운 멸종 패턴을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는 평가가 현재는 우세합니다.

따라서 가장 그럴듯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확산활동-기후변화 같은 배경 스트레스가 이미 있었고, 그 위에 소행성 충돌이 겹치며 찢어질 것 같고, 급격한 냉각, 광합성 감소, 먹이를 붕괴가 연달아 일어나 세를 뺀 공룡을 포함한 많은 생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체 생물 중의 약 75%가 사라졌고, 공룡 가운데서는 새 계통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Science, PHAS, Nature Communications, IODP, ICS 같은 1차 논문-공식 기관 자료를** 우선해 정리했고, 한국어 설명은 보조적으로 공식 지질기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6600만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

백악기-팔레오기 경계는 6600만 년 전쯤의 아주 얇은 지층 경계입니다. 고생물 방사성 연대측정은 이 경계의 나이를 대략 **66.02-66.04백만 년** 전으로 좁혔고, 충돌과 대멸종이 거의 같은 때 일어났음을 보여 줍니다. 쉽게 말해, 과학자들은 암석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오래 가든 시계’를 읽어서 시간의 날짜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경제 직접 수반 1년 동안에는 데칸 트랩 화산이 여러 번 크게 분출했습니다. 2019년의 고정밀 U-Pb 연구는 큰 분출 파동 가운데 하나가 **66.1-66.0백만 년** 전 즉 경계 바로 직전에 있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4년 연구는 멸종 약 **3년 전** 전에 비교적 짧은 냉각이 있었고, 이것이 확산성 황 에어로졸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뒤, 지금의 유카탄 반도 부근에 거대한 천체가 충돌해 지름 약 **180-200km** 규모의 거대한 충돌구를 만들었습니다. 국제 지구 연구는 이 충돌구가 K-Pg 대멸종과 직접 연결된 유일한 지상 충돌구이며,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충돌 지역은 대략적으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해당합니다.

#### 한국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공부 계획

##### 1단계: 전체 흐름 잡기

먼저 시대 구분부터 이해해.

- 1890년대 ~ 1910: 국권 침탈
- 1910 ~ 1919: 무단통치와 초기 저항
- 1919 ~ 1930년대: 독립운동의 확대
- 1930년대 ~ 1945: 무장투쟁 + 국제전

##### 🍌 목표

→ “시대 분위기”를 먼저 이해하기

##### 2단계: 국권 침탈과 초기 저항

###### 핵심 사건

- 을사늑약
- 헤이그 특사 사건

###### 주요 흐름

- 의병 활동 (무력 저항 시작)
- 안중근 의거

##### 🍌 핵심 질문

→ 왜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했을까?

##### 3단계: 3·1운동 (가장 중요한 전환점)

###### 핵심 사건

- 3·1운동

###### 의미

- 전국적인 대규모 독립운동
- 이후 독립운동 방식이 다양해짐

### 프로젝트 예시

### 캔버스 예시

ChatGPT

김종도 베타작 발표문 피드백

Edited 김종도 베타작 발표문 피드백

캔버스에 전체 발표문을 그대로 두고, **어색할 수 있는 부분만** 🍌 표시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표시해 줘요.

이제 너는:

- 표시된 부분만 보고 고칠지 말지 선택하면 되고
- 전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어요

원하면 다음 단계로

- 🍌 “실제 발표문으로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버전”도 만들어주세요.

김종도의 베타작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인 김종도의 베타작이라는 그림을 감상해 볼 거예요.

김종도에 대해 잠시 함께 설명해 드리자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씨름’과 ‘빨래터’ 등이 있어요. (여기서 ‘대표작’ 언급 → 다시 베타작으로 넘어가는 연결 문장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자세히 감상해 볼까요? ‘베타작’은 김종도의 작품인 **단상복속화첩** 중 한 장면이에요. ‘베타작’은 그림에서 **치밀** 배를 수확해 거두어 올린 다음 **낚시**를 보여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먼저 오른쪽 구석에는 감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는 한 사람이 배를 다루고 있고, 다른 **네명**의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래의 또 다른 사람은 **물고기**를 낚아들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때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 일꾼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하니 즐거워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예가 오른쪽 구석에 감옥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감옥하는 사람이 왜 일까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일꾼들의 주인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림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그림**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인물 설명 중간에 들어가 있어 흐름이 살짝 끊길 수 있음. 위치를 바꿀지 고민해볼 수 있음)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여러 사람이 협력 중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림 속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한 배에서 낚을 얻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타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활동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음)

그럼 이 그림을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이 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면서 **평온**하면서도 **고요**, **평온**하고 **어우러**는 느낌이예요.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모습이야 그런지 화난 표정보다는 **미소**는 얼굴이 많아요. (‘미소’ 표정 질문과 내용이 일부 겹침 - 하나로 합칠지 고민 가능)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이 그림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 저는 김종도의 이 그림에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추수**기간에 **베타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김종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중이**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모습을 담아 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김종도의 그림은 현재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상황을 짐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도 커서 **김종도**처럼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03

# Gemini 활용 - 3단계 실전 가이드

이미지, 음악, 실시간 음성까지 - 창의적 발표와 맞춤형 학습 환경에 강합니다.

1

## 감각으로 소통하기

타이핑 없이도  
쉽게 시작

Gemini Live 음성 대화  
이미지, 음악 만들기

2

## 환경 세팅하기

질문 근육을 키우는  
맞춤 환경 만들기

Gems 설정  
Notebooks, Learn 모드

3

## 깊이 파고들기

리서치, 글쓰기로  
진짜 결과물 완성

Deep Research  
Canvas로 다듬기

### \* 1단계 - Gemini Live, 이미지, 음악 만들기

#### 말하고, 보고, 만들며 시작하는 학습

Gemini Live로 실시간 음성 대화를 하며 영어 발표를 연습하거나 브레인스토밍합니다. 발표 자료에 들어갈 이미지와 배경 음악도 텍스트 설명만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 :** “내 발표용 배경 음악을 만들어 줘. 30초짜리로, 밝고 희망찬 느낌으로”, “환경오염 발표용 이미지, 깨끗한 지구와 오염된 지구를 대비해서 그려줘”

환경오염 발표 자료에 들어갈 그림인데, 깨끗한 지구와 오염된 지구를 대비해서 그려줘.

환경오염 발표 자료에 들어갈 그림인데, 깨끗한 지구와 오염된 지구를 대비해서 그려줘.

생각하는 과정 표시



소스

🔍 🔄 ⏪ ⏩ ⌵

이미지 만들기  
예시

내 발표용 배경 음악을 만들어 줘. 30초짜리로, 밝고 희망찬 느낌으로

Music

발표를 위한 밝고 희망찬 30초 분량의 배경 음악을 생성했습니다. 지금 바로 재생하여 확인해 보세요!



음악 만들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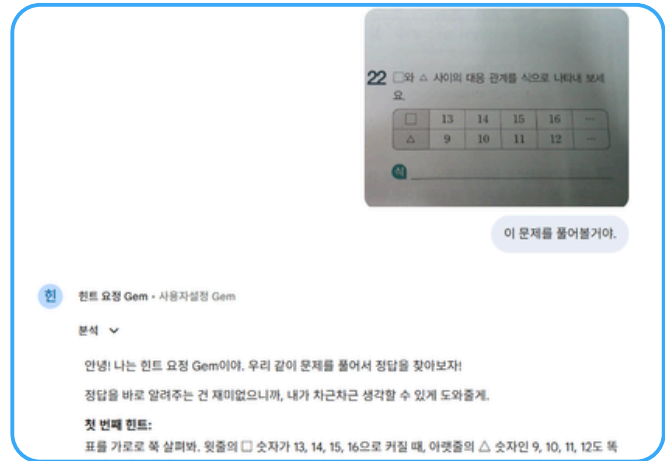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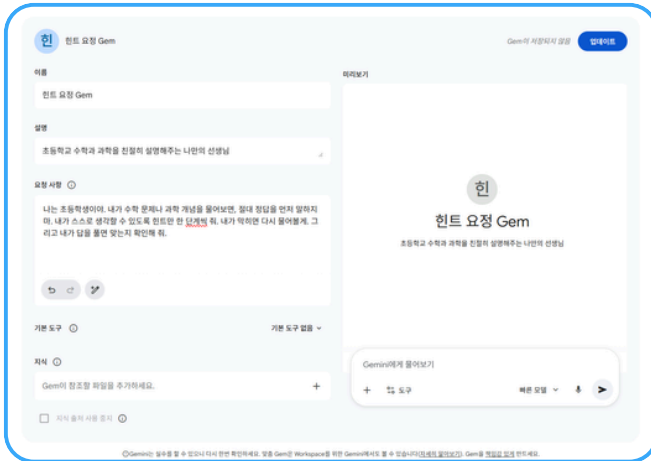
## \* 2단계 - Gems, Learn 모드, Notebooks

좋은 질문 방식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환경

Gems는 내가 원하는 역할과 규칙을 미리 설정해두면,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그 방식 그대로 대화합니다. Learn 모드는 버튼 하나로 힌트 중심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Notebooks는 교과서 PDF를 올리면 그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아주어 엉뚱한 정보가 섞일 걱정이 없습니다.

Gems 설정 예시 : 이름 : 힌트 요청 Gem / 지시 : “나는 초등학생이야. 수학, 과학을 물어보면 절대 정답을 먼저 말하지 마. 힌트만 한 단계씩 줘.”

### Gems 예시



## \* 3단계 - Deep Research, Canvas

진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단계

Deep Research는 여러 웹사이트와 문헌을 교차 조사한 뒤 리포트로 정리합니다. 출처를 함께 표시하므로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를 습관으로 만들기에 좋습니다. Canvas는 내가 쓴 글을 함께 다듬는 편집 공간입니다. - AI가 대신 쓰는 곳이 아닙니다.

예시 : “환경오염에 대해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줘.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줘”

### Deep Research 예시



## SECTION 04

## 언제 무엇을 쓸까 - 상황별 선택 가이드

ChatGPT와 Gemini는 방향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면 효과가 커집니다.

| 이런 상황일 때                              | 추천 도구   | 이유와 활용 방법  |
|---------------------------------------|---------|--|
| 수학, 과학 힌트 학습<br>문제를 스스로 풀고 싶을 때       | ChatGPT | 논리적 단계 유도에 강함. “힌트만 줘” 프롬프트와 함께 사진으로 문제 첨부                 |
| 영어 말하기 연습<br>발음, 표현을 교정받고 싶을 때        | Gemini  | Gemini Live 실시간 음성 대화, 틀려도 부끄럽지 않은 심리적 안전 공간               |
| 발표 자료, 이미지, BGM<br>직접 만든 시각 자료가 필요할 때 | Gemini  | 텍스트 설명만으로 이미지, 음악 생성, 직접 만든 결과물로 성취감 제공                    |
| 교과서 자료 기반 학습<br>PDF나 프린트물로 퀴즈 만들 때    | Gemini  | Notebooks에 자료 업로드 → 그 자료 안에서만 답변. 엉뚱한 정보 유입 차단             |
| 장기 탐구 프로젝트<br>며칠에 걸쳐 한 주제를 깊이 팔 때     | ChatGPT | 프로젝트 기능으로 대화 맥락 유지. 매 대화마다 배경 재설명 불필요                      |
| 단원 복습 퀴즈<br>시험 전, 평소 복습               | 둘 다 가능  | ChatGPT는 정교한 난이도 조절, Gemini Learn 모드는 클릭 한 번으로 간편 시작       |
| 글쓰기, 발표문 다듬기<br>내가 쓴 글을 함께 고칠 때       | 둘 다 가능  | ChatGPT 캔버스 / Gemini Canvas - 모두 “대신 써주는 곳”이 아닌 “함께 다듬는 곳” |
| 힌트 방식 자동 유지<br>매번 설정하기 번거로울 때         | Gemini  | Gems 기능으로 한 번만 설정하면 자동 적용. 아이와 함께 Gem 이름, 규칙 직접 설계         |

**부모님께 드리는 팁 :** 처음에는 둘 중 하나만 시작하세요. ChatGPT로 “힌트만 줘” 질문 방식을 먼저 익히고, 익숙해지면 Gemini의 Gems로 그 방식을 자동화하는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 SECTION 05

## 실제 적용 - Before &amp; After

아이들과 직접 써보면서 확인한 변화입니다. 수치보다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 사례 1. 수학 문제 앞에서 - “답 주는 기계”에서 “생각 파트너”로

## Before

수학 문제를 보면 바로 ChatGPT에게 “이 문제 답이 뭐야?”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받아 적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숙제는 빨리 끝났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 After

질문을 바꿨습니다. “답은 말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을 써야 하는지만 알려줘.” 처음엔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유형의 문제 앞에서 아이 스스로 “이거 저번에 한 방식이랑 비슷한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없이도.

## 사례 2. 발표 준비 - “복붙 발표”에서 “내가 만든 발표”로

## Before

발표 주제가 정해지면 AI에게 “환경오염 발표문 써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물을 그대로 읽는 발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도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 After

방식을 바꿨습니다. 먼저 아이가 직접 내용을 정리하고, AI에게는 “내가 쓴 내용인데,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만 봐줘”라고 요청했습니다. Gemini로 직접 만든 이미지와 배경 음악을 발표 자료에 넣자, 글만 읽는 발표가 아닌 자신의 결과물로 채워진 발표에 아이는 훨씬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 사례 3. Gems 환경 설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학습 파트너

## Before

매번 질문할 때마다 “답 말고 힌트만 줘”라고 입력하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귀찮은 날엔 그냥 답을 물어봤습니다. 좋은 질문 방식을 알아도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 After

Gemini에서 아이와 함께 “힌트 요정 Gem”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설명, 규칙을 아이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후 이 Gem을 열면 자동으로 힌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Gem 이름을 짓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학습 파트너가 필요해?”라는 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 SECTION 06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기능이 편리할수록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용 전 아이와 꼭 이야기 나눠보세요.

## \* 1. AI의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렇듯해 보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 숫자, 역사적 사실처럼 정확해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나 믿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 \* 2.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를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Deep Research나 웹 검색 결과를 볼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출처를 직접 눌러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쌓이면,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아이와 검증하며 읽는 아이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 \* 3. AI가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을 구분하세요

글이든, 이미지가든, 음악이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AI는 내 아이디어를 더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생각했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부모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 CLOSING

**통제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AI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막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현실적인 답이 아닙니다. 아무 설정없이 AI를 쥐어주면 “뭐든 대신 해주는 기계”가 되고, 올바른 환경 안에서 쓰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아이가 AI 앞에서 올바르게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설계해주는 것,  
그게 지금 부모님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AI 교육입니다.